

최 근 정유업계는 난데없이 나타난 리비아産 原油 1백50만 배럴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한동안 시끌시끌하더니, 이제는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국내油價인하의 여파로 점차 顯在化되기 시작하는 자금압박으로 비상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大宇가 정부의 수입추천이나 실수요자인 정유사와 사전협의없이 들어온 리비아産 브레가原油 1백50만배럴은 그후 확인결과 정책원유로 밝혀졌으나, 저간의 과정을 보면 그 뜻밖은 썩 개운치가 못하다. 이번에 정상적인 수출입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나 정유사에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원유를 들어온 소행은 상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독단이기 때문이다.

과우간 이번에 소동을 벌인 리비아원유가 「정책원유」로 확인됨으로써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정책원유」라는 이름의 타의적인 원유도입은 앞으로 계속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번에 논란의 불씨가 된 리비아産 브레가 원유만 하더라도 정책원유로 취급되어 지난 82년부터 하루 2만

국내油價인하와 精油業界의 자금난

배럴씩 도입하여 왔으나, 性狀面에서 유동점이 높아 겨울철에 사용할 수 없는데다가 가격이 비싸 이 원유의 도입을 둘러싸고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리비아産 브레가원유는 지난 3월 28일에도 1백50만배럴 들어온 적이 있으나, 도입단가가 精油社의 3월평균도입단가인 17달러91센트보다 무려 8달러69센트나 높아 결국 정유사들이 1천3백만 달러나 추가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원유는 정유업계로서는 받을 수도 안받을 수도 없는 물건이다. 그것은 정책원유의 경우 많은 문제점과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원유는 他원유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국제수지개선노력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국민경제에 추가부담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82년부터 86년 1/4분기까지 리비아원유도입으로 모두 5천9백만달러의 추가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또 리비아産 원유는 유동점이 높아(-1℃) 겨울철에 처리가 어려우며, 저장시설과 송유시설등에 추가보온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 원유공급과잉으로 정책원유가 계속 도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한계가 세워져야 할 것 같다.

이제 정유업계의 최대의 당면과제는 油價인하에 따른 자금압박현상이다. 油價가 내린 마당에 정유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니 일반국민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다. 지난 2월 20일과 3월 30일 두차례에 걸쳐 국내油價가 인하된 이후 국내경제가 「3低」의 好機를 구가하며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정작 石油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유업계는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니 아이로니칼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정유업계 자금난의 배경은 이렇다.

올해 들어 국내油價는 두차례에 걸쳐 22.25% (공장도 가격 기준)가 내렸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매출대전의 현금유입액이 종전대비 22.25% 감소된 반면, 앞으로 상당기간 결제해야 할 원유도입 외상대전은 대부분 국제원유가격 인하전의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홍보실장)

高價原油이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지난 2월 20일과 3월 30일 두차례에 걸친 국내油價 인하시 실행판세율과 석유사업기금등 정부부담비용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업계의 자금수요가 더욱 늘어나 자금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원유가격 추가인하분을 석유사업기금 조정으로 흡수할 경우 업계의 자금부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자금수지상 약 3천7백억원내지 5천4백억원 상당의 결제자금부족이 발생되며, 여타

자금개선효과 1천3백억원을 차감할 경우,純資金부담액은 2천4백억원 내지 4천1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는 이와 같은 자금부족을 자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요자금조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행 국내與信 규모의 한계성과 경직적 운용등으로 금융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또 원유도입의 연지급수입기간과 해외단기차입허용기간이 1백20일로 한정됨으로써 해외여신에 의한 자금부담해소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상당기간에 걸쳐 집중되는 정유업계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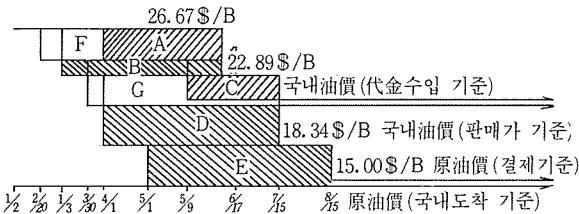
국제原油價 인하 및 國內油價조정에 따른 국내 정유업계 자금부족액 산출내역

1. 前提

(단위 : \$ / B)

	국 제 原 油 價	基 金	關 稅	국 내 油 價
1/1	26.67	-	-	30,132 원
2/1	22.89	-	-	30,132 원
2/20	22.89	-	0.92 (4%)	26,235원 (12.93%인하)
3/1	18.34	-	0.92 (4%)	26,235 원
3/30	18.34	1.42	2.06 (11%)	23,429원 (10.7%인하)
4/1 (가정)	15.00	1.42	2.06 (11%)	23,429 원
5/1 (가정)	15.00	5.80	2.06 (11%)	23,429 원

2. 資金부담의 원인



국내油價 인하에 따른 자금부담 : A + C
 基金/關稅 인상에 따른 자금부담 : B + D + E
 매출채권 감소에 따른 자금부담 감소 : F + G

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유연지급수입기간과 해외단기차입허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지급수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원유도입가격이 종전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기 때문에 정유업계의 단기외채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국제원유가격 인하에 따른 원유사업기금 추가징수액의 납부시기도 향후 상당기간동안 연장하는 조치도 취해져야 할 것이다.

정유산업이 앞으로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공급이라는 책임을 계속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

3. 資金부담 규모

(단위 : 억원)

	22.89 \$/B	18.34 \$/B	15.00 \$/B
國內油價 인하에 따른 부담	1,454	912	-
基金 / 關稅 인상에 따른 부담	364	955	1,670
計	1,818	1,867	1,670
총 자금 부담	1,818	3,685	5,355
매출채권 감소에 따른 부담감소	△756	△544	-
計	1,062	1,323	1,670
純資金 부담	1,062	2,385	4,055